

장백산천지

제 368 호

2020 년 1 월 4 일

토요일

[명후이왕] 2019 년 12 월 15 일, 퀴즐랜드 일부분 파룬궁수련생들이 2020 년 새해를 즈음해 당지 유명한 유람지 캉가루포인트파크에 모여 파룬궁창시자 리홍쯔(李洪志)선생님께서 새해를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렸으며 가장 송고한 경의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

고중교사: 파룬궁을 수련해 나로 하여금 정신상 힘을 얻고, 관용(寬容)하게 변화했다

뤄라얼(羅拉爾)은 고중 교사이다. 그는 10 여세때 부터 줄곧 생명의 답안을 찾았으며 그때문에 여러종의 공법을 배웠다. 한번은 인도에서 여행 도중에 두개의 사원에서 유가, 태극과 기공을 배웠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건강 전업인원이 됐다.

1999 년, 그는 기묘한 기원으로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이때로부터 룴라얼의 생활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마침내 생명의 답안을 찾았으며, 곤혹했던 모든 문제를 파룬궁에서 해답을 얻었다.

"나의 신체는 예전처럼 매일 대량의 보약을 써서 건강을 유지 할 필요가 없게 됐고, 나는 부동한 식물에 적응 할수도 있게 되었으며, 다시는 침구사를 찾아가 치료받을

▶ 서방인 파룬궁 수련생 룴라얼은 파룬궁창시자 리홍쯔(李洪志)선생님께서 새해를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립니다!



호주 퀴즐랜드 파룬궁수련생들이 새해를 맞이해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퀴즐랜드 파룬궁수련생은 캉가루포인트파크에 함께모여 파룬궁창시자 리홍쯔(李洪志)선생님께서 새해를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렸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나의 정신은 힘을 얻게 됐고 관용하게 변화여, 생활에 더욱 적응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고중교사로서 수련후 그는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말성꾸러기 학생들을 대면할수 있게 됐다. 그는 "나는 더이상 그들의 행위가 나를 겨누는 것이 라고 느껴지지 않아 더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 원칙을 나의 일상 생활에 유입시켜 아이들을 첫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들을 보살핌, 동정과 가르침으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모든것은 내가 파룬궁수련생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수련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다른 교사들처럼 울며 시끄러운 수업시간을 떠났을 것 입니

다." 파룬궁수련을 통해 룴라얼은 건강한 신체를 얻었을뿐만 아니라 그의 내심도 아주 행복하다고 표시했다. "나는 이미 72 세이지만 외면과 내심의 변화는 나로 하여금 많이 젊어 지게 합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리홍쯔(李洪志)사부님께서 연분있는 사람들이 모두 '진선인(真善忍)'을 일상 생활중에 유입 되도록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대중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파룬궁을 수련할수 있게되어 저는 너무나 행운스럽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께서 새해를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립니다." ◇

지혜의 근원

파룬따파는 사람을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에게 행복과 리익을 가져다 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면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사람으로 하여금 성실, 선량, 관용, 평화롭게 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열 수 있다 ◇

악인 명단 10만 명 리스트, 결국 선악의 응보를 받게 된다

2019년 5월 31일, 파룬따파 밍후이왕은 '미 국무부 관계자가 미국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박해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통고'를 발표했다. 밍후이왕은 '통고'에서 '국내외 파룬궁수련생들은 즉시 행동해 박해자 명단을 더욱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밍후이왕에 제출하기 바란다. 박해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박해자 본인과 친인척, 자녀, 재산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 바란다.' 라고 밝혔다. '통고'가 발표된 지 반년이 이미 넘었다. 박해자 명단은 파룬따파 밍후이왕에 눈송이처럼 날아들었다. 2019년 11월 15일, 밍후이왕은 '악인 명단에는 파룬

궁수련생 박해에 참여한 105,580 명의 명단이 수집됐으며, 그들의 개인정보와 악행 등이 기록돼 있다. 목적은 박해를 저지하고 선량함을 수호하며 정의를 지지함에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통고'와 '밍후이왕 악인 명단'의 역할은 '생사부'가 인간 세상에 재현하는 것과 같다. 이른바 '선을 행하면 천지가 알고, 악을 행해도 역시 천지가 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하면 최후에 그는 반드시 그로 인해 책임져야 한다. 사람은 흐리멍덩할 수 있지만, 머리를 쳐들면 석자 위에 있는 신령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가? ◇

믿는가 믿지 않은가는 하늘 땅 차이이다

[밍후이왕] 리씨는 나에게서 무엇때문에 사람마다 삼퇴(중국공산당의 당, 단, 대에서 퇴출)를 해야 하는가를 듣고나서 그는 아주 믿으면서 곧바로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퇴출하겠다고 표시했다. 그리고는 두딸집과 아들집 근 10여명의 친인에게 알려 삼퇴를 시켰다. 그는 또 내가 준 진상자료를 즐겨 보고 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썬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했다. 이씨네 온 가족들은 몇년래 아주 순리로웠는데 집안이 흥성하고, 경제가 왕성했다. 특히 아들집에서는 작년에 진에다 면적이 200평 되는 땅에 8층되는 아파트 한채를 지었고, 또 시가지에다 새 주택도 샀는데 두곳의 집가치는 천만원을 초과한다.

한 후(胡)씨 남성은 퇴직하자마자 장암에 걸려 집식구들은 급한 나머지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하루는 내가 그의 집에 가서 그에게 삼퇴를 권하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썬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성심으로 염하면 좋은점이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진상테꾸와 자료를 주었더니 그는 모두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 후씨남성은 얼마후 병이 나아졌으며 지금은 신체가 아주 건강하다.

삼퇴를 거부한 사람은 다르다.

한 주(周)씨 성을 가진 의사는 폐암에 걸려 수술을 했다. 처음 두달은 그래도 괜찮아 매일 마작놀이 하러다녔다. 나는 그를 알게된후 삼퇴하여 평안을 보존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퇴출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도리어 자신은 과학만 믿는다면서 나쁜 말까지 했다. 그리고 얼마 안돼서 그는 갑자기 사망했다.

투(圖)씨는 53 세이다. 그는 한 지방의 610 (장쩌민집단이 파룬궁박해를 위해 전문 성립한 불법조직) 두목이었다. 뇌암에 걸려 성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나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삼퇴를 권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아주 흉악하게 삼퇴는 왜 하겠는가? 내가 공산당이 주는 월급을 받고 병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나의 형수가 바로 파룬궁을 수련한다. 그녀도 4 차례나 와서 나더러 퇴출하라고 했지만 나는 번마다 욕해 그녀를 울렸다"라고 말하면서 나더러 더는 말하지 못하게 했다.그후 한달도 안돼 이 사람은 사망했다. ◇

연변 박해 소식

▲훈춘시검찰원은 73 세인 파룬궁수련생 리춘만을 불법판결하려고 하다

훈춘시 610 을 위주로한 공안국 국보대대, 신안(新安)파출소, 하남 파출소, 검찰원, 법원 등 부문의 경찰은 본지방 여러명 파룬궁수련생을 부단히 소란하고, 납치하고, 불법징역했다. 최근 검찰원에서는 73 세인 파룬궁수련생 리춘만의 가족에게 전화로 리춘만을 불법징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족은 리춘만의 안위에 대해 아주 걱정하고 있다. 그의 집에는 93 세인 모친, 고중생 손녀와 올해에 금방 학교에 들어간 손자까지 모두 리춘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화룡시 팔가자 삼림공안국 하남파출소 경찰 천시취안(陳喜權)을 폭로하다

화룡시 팔가자 삼림공안국 하남 파출소 경찰 천시취안(陳喜權)은 현재 매개 파룬궁수련생의 집을 다니면서 소란하고 있다. 말로는 "관심"한다고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 함부로 사진을 찍는다.

▲화룡시 양위차이(楊玉財)친리친(秦立琴)부부는 억울하게 3년 불법징역형을 선고받다 (보충)

양위차이,친리친부부는 2018년 6월에 납치돼 3년 불법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양위차이는 현재 불법으로 공주령감옥에 감금됐다. ◇



[망후이왕]상해시 민싱(閔行)구 파룬궁 수련생 덩청런(鄧成聯)은 2018년 3월에 경찰이 집안에 들이닥쳐 납치 그리고 모함을 당했다. 2019년 4월 16일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아 4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8천원의 벌금을 갈취당했으며, 이미 감옥으로 납치됐다. 가족은 어느 감옥인지 통지받지 못해 사방에 문의했으나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했다.

고향을 위해 28 만원을 공급하여 도로를 건설한 착한사람 납치돼 수감되다

덩청런은 1971년에 호북성에서 출생했다. 상해에 회사를 설립해 성공을 얻었다. 그러나 사회에 떠도는 나쁜 풍습에 휘말려 덩청런도 자신을 방종한 결과 젊은 나이에 벌써 신경쇠약증, 심각한 위장병에 걸렸다. 행복했던 가정도 결코 깨지고 말았다.

그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1년도 되지 않아, 모든 나쁜 습관을 버렸고, 수년간의 위병, 생리 전립선염 증상이 모두 완쾌됐으며, 심각한 불면증도 사라져 완전히 몰라보게 달라졌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지켜보더니 누구나 기적이라고 감탄했다.

2010년에 덩청런은 고향에 단번에 28 만원을 공급해 몇 갈래의 평평하고 넓은 세멘트 길을 닦아 예전에 편벽했던 두메산골과 주변의 변화한 진(鎭), 큰 정기 시장을 연결 시켰다. 고향 동네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은 덩청런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매번 고향으로 돌아가게되면 덩청런은 늘 시간을 짜내 마을의 무의탁 노인, 곤란한 가정을 문안하여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낌없이 주머니를 털어 도와줬다.

납치, 감금, 학대를 당하다

2018년 3월 23일, 상해 민싱구 국가보안과 경찰 추귀차이(瞿國財) 등은 불법적으로 덩청런의 집에 들이닥쳐 그를 납치해 민싱 구치소에 감금했다. 덩청런은 안에서 협력하지 않았다. 구치소 경찰은 덩청런에게 족쇄와 수갑을 채워 학대를 진행했다. 덩청런은 단식으로 박해를 항의했다. 3월 30일에 상해 감옥 총 병원으로 납치당해, 사인상(死人床) 위에 11 일 동안 묶여 움직일 수 없어 매우 고통스러웠다. 4월 27일, 덩청런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받았다.

6월부터 덩청런은 두 번째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했다. 구치소에서는 강제로 그의 요도에 삽관(導尿)해 생식기를 붉게 부어오르게 했고 결국 요도를 굽게 했다. 또 약 1개월쯤 덩청런을 침대 위에 묶고 움직일 수 없게 했다. 7월 3일, 덩청런은 거둬 상해시 감옥 총병원으로 납치돼, 사인상 위에 17일 동안 묶여있었다. 사지를 침대 위에 묶고 가슴 위에 또 한 갈래를 묶고는 호 코스를 꽂고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했다. 줄곧 사인상에 묶겨 있었기에 그의 뒤잔

등은 썩기 시작했다.

9월 3일, 덩청런은 독방에 갇혔다. 9월 4일, 덩청런은 제3차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8 일 동안 저녁에는 독방에 갇히고 낮에는 사인상에 묶여 강제로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9월 17일에 비로소 독방에 갇히지 않았다.

10월 말, 덩청런의 고향 친구들은 연대 서명으로 즉시 무조건으로 좋은사람 덩청런을 석방하도록 긴급 호소를 진행했다. 동네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은 잇달아 서명했다.

4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다

2019년 4월 16일, 덩청런은 상해시 평센구(奉賢)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단식으로 박해를 항의한 이유로 몸이 허약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에서 가족이 위탁한 두명의 변호사가 신앙 자유, 형법 300 조는 사용함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각도에서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또 특별히 덩청런이 수련한 후의 변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려 했는지를 강조했다. 덩청런은 최후 4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 받고 투옥됐다.

10월에 호북성 치춘(蕪春)현 고향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말했다. 감옥 경찰관이 덩청런의 고향으로 가서 가족을 찾아, 덩청런이 감옥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데다 몸 상태가 매우 안좋아 가족더러 면회하러 가라고 전했다.

덩청런의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아내와 이혼했으며, 그의 형과 누나는 상해에 있어 고향에 가족이 없었다. 지금 그의 형과 누나는 또 호북성 치춘현 고향 파출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서야 어느 감옥에 있는지 알 수 있다. ◇

진상을 명확히 아는 중생이 갈수록 많아지다

그는 오른 주먹을 높이 들어 올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높이 외쳤다.

2018년 12월의 어느 날, 나는 동수와 함께 시 외곽에 가서 진상하려고 세화(年畫)를 배포하려 갔는데 길을 걷던 남성 한 명을 만났다. 우리는 세화 한 장을 그에게 선물했다. 그는 보자마자 파룬궁 수련생들이 제작한 세화인 것을 알고 그냥 오른 주먹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파룬따파하오!” 왼손 주먹을 쥐고 고개를 높이 쳐들고 외쳤다. “전산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리 대사님 안녕하세요(李大師好!).” 그는 마주 걸어오는 행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또 우리는 십여 년 전에 진상을 말하고 삼퇴를 권할 때부터 당 조직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 평안 호신부를 주면서 그에게 파룬따파하오를 늘 읽으면 평안하고 길하며 축복을 받는다고 알려 주었다.

그 둘은 계속하여 큰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작년 12월의 어느 날, 우리의 이곳 길에는 눈이 없고, 날씨는 건조하고 쌀쌀했는데, 서북풍이 불어 얼굴은 정말 칼로 베는 것 같았고 손도 얼어 잘 쓰지 못했다. 오후 3시가 넘어서 동수와 함께 밖에 나가서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아 진상하고 있었는데, 앞에 부부처럼 보이는 한 일남 일녀가 왔다. 우리는 그 둘을 맞이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탁상용 달력 하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수고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삼퇴 일을 말하자 그들은 진작 탈퇴했다고 했다. 우리 둘과 그들 둘은 서로 인사를 나눈 후

각자 자기 길을 떠났다. 고개를 돌려 보니 그 둘은 아직도 우리를 눈으로 전송하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당신들 수고합니다.”라고 했다.

“파룬궁(法輪功)은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처럼 박해당하다니!”

한번은 진상하려고 방금 한 주택 단지에 도착했는데 바로 60대 남성을 만났다.

나는 앞으로 다가가서 인사했다. “형님 안녕하세요! 새해가 다가오는데 형님에게 달력 한 부 드릴게요. 파룬궁의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파룬궁은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처럼 박해당하고 있다니, 나는 공산당이 당신들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집에 가서 벽에 붙이고 평안을 보장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은 한 시장에서 70대 노인을 보았는데, 나는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다가가 그에게 말을 걸고 진상을 말하면서 ‘삼퇴’를 권했다. 그에게 세화 한 장과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 한 권을 주었는데 그는 매우 기뻐하면서 세화를 위로 들어 올려 말했다. “집 벽에다 붙이면 평안을 보장받는데, 얼마나 좋은가!” 나는 한동안 길을 걸어나갔지만, 그는 아직도 거기에서 나를 보고 “고마워요!”라고 연거푸 말했다.

조선족 노인이 세 번이나 두 손 모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날 거리에서 한 조선족 노인을 만났는데, 내가 그녀에게 진상을 말한 후에 그녀는 당, 단, 당 조직에서 탈퇴했다. 나는 그녀에게 사악한 당의 표기를 지우면 큰 재난이 올 때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신불이 책임지고 보호한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곧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또 책을 읽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이라는 책을 주었고, 그녀는 다시 두 손을 모아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특별히 감격했다. 최후에 나는 그녀에게 평안 호신부를 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기쁨이 그지없었다. 이것은 모두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당신은 파룬따파 사부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자, 그녀는 “대법 사부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내년에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2018년 12월 20일경, 나는 동수와 함께 시 외곽에 가서 진상 세화를 배포했다.

한 노인이 마주 오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세화를 한 장 주었다. 그녀는 반갑게 받으면서 물었다. “탁상용 달력이 있나요, 나는 탁상용 달력을 가지고 싶어요.” 우리는 다 배포하고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쉬워하며 말했다. “내년에 나에게 한 부를 보내 주세요.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그녀에게 세화를 줄 때, 그녀는 우리를 막고 말했다.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세요. 보게 되면 진짜 잡아요. 그리고 500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대요. 당신들이 큰길을 걸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해요.” 헤어질 무렵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연속 말했다. ◇



회화 작품: <<명(明)>>